

사회

내일 경찰의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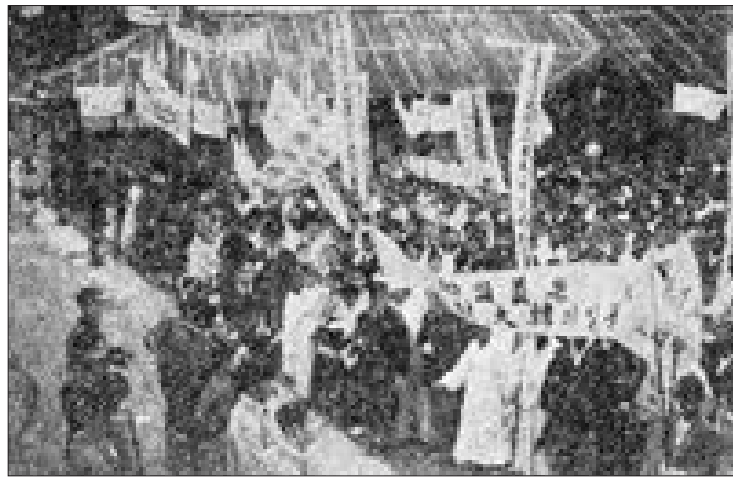
안중삼 前 구례서장 '한국판 신들러'

6·25 때 보도연맹원 480여명 목숨 구해

진실위 공식 확인...1975년 광주일보 소개

6·25 전쟁 당시 학살 위기에 놓인 수백여명의 목숨을 구한 경찰서장의 활약상이 60여년 만에 사실로 확인돼 화제가 되고 있다.

보의 전신인 구 전남일보가 지난 1975년 발행한 '광복 30년사'에 도상세히 소개돼 당시의 급박한 상황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광주일보의 전신인 옛 전남일보가 지난 1975년 발간한 '광복 30년'의 구례 국민보도연맹 결성식 사진. 안중삼 전 구례경찰서장이 제공한 이 사진에는 1949년 발족식 당시 보도연맹원들의 모습이 담겨있다.

19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구례 국민보도연맹 사건 조사 결과 안 서장이 지난 1950년 7월 24일 좌익활동으로 구례경찰서 유치장에 갇혀있던 보도연맹원 480명을 석방한 일화가 사실로 확인됐다.

안 서장은 당시 상부로부터 이들을 처형하고 퇴각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지역 유지들의 간청을 듣고 이를 동안 장교를 거듭한 끝에 용단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국 백성이 돼 주십시오"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안 서장의 이 말 한 마디에 죽음을 눈앞에 뒀던 500여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1949년 9월 당시 좌익들의 정신교육을 위해 구례에 국민훈련원을 설치, 300여명의 좌익들에 대한 교육과 함께 이들의 사면을 위해 헌신적인 활동을 펼친 사실도 확인됐다.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안 서장은 당시 상부로부터 이들을 처형하고 퇴각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지역 유지들의 간청을 듣고 이를 동안 장교를 거듭한 끝에 용단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안 서장은 이들을 향해 "여러분을 모두 방면합니다. 내가 반역으로 몰려 죽을지 모르지만, 혹시 죽으면 내 혼이 각자의 가슴에 들어가 지킬 것이니 선량한 대한민

이에 군민들은 1951년 4월 안 서장이 남원 지리산지구경찰전투사령부로 발령이 나자 그의 공덕을 담은 10쪽짜리 병풍 등을 선물하는 등 헌없는 애정을 보냈다.

한편 진실·화해위원회는 1950년 7월 14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수십명이 희생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가운데 7명의 신원을 밝혀냈다.

특히 안 서장의 활약상은 광주일

보의 전신인 구 전남일보가 지난 1975년 발간한 '광복 30년'의 구례 국민보도연맹 결성식 사진. 안중삼 전 구례경찰서장이 제공한 이 사진에는 1949년 발족식 당시 보도연맹원들의 모습이 담겨있다.

앞서 안 서장은 6·25 직전인

4/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전남경찰악대 꼭 해체해야만 하나...

전·의경 축속 따라 이달 말 사라질 위기

2,500회 공의 공연 ... '국민의 벗' 아쉬워

경찰청의 전·의경 감축 방침에 따라 전남지방경찰청의 경찰악대가 사라질 운명으로서 지역민들의 아쉬움이 커지고 있다.

며, 전·의경 감축 방침에 따라 내달부터 빨빨이 흩어질 운명에 처해있다.

경찰악대는 그동안 2천500여회의 공연을 통해 광주·전남 문화 소외계층의 욕구를 충족시켜왔고 딱딱한 경찰의 이미지를 완화시켜 시민과 가교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그 명맥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상당수 지역민들은 경찰악대 폐지를 놓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동안 경찰악대는 '곤봉'과 '방패' 대신 아름다운 선율을 통해 '경찰도 친숙할 수 있다'는 이미지를 심어왔기 때문이다.



18년의 역사를 접고 이달 말 해체되는 전남경찰청 악대가 지난 18일 폐막된 '충장축제'에서 가두 연주를 하고 있다. <전남지방경찰청 제공>

19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전국 지방경찰청 유일의 전남경찰악대가 이달 말로 예정된 마지막 공연을 끝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현재 전남경찰악대는 27명이 근무 중이

또 27명에 불과한 경찰악대를 폐지해 일선에 배치하는 것을 놓고 '얻는 것'보단 '잃는 것'이 많을 것이라는 반응도 높다. 일각에선 경찰관들이라도 경찰악대의 명맥을 이어가야 한다는 주장도 일고 있다.

또 경찰악대는 주민들의 공연 요청에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달려갔으며, 연말이면 장애인과 노인, 아동 복지시설 등을 찾아 감동은 시골마을과 불우시설 등을 찾아 간 대의 행사라는 점에서 주민들의 아쉬움이 커지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해 11월 14일께 광양시 에스엔씨 조선해양(주) 사무실에서 "조선선 건립 공사 현장 식당과 완공 후 10년간 구내식당, 매점 운영권을 주겠다"며 계약금

전남경찰악대는 지난 1991년 4

이중행 기자 golee@kwangju.co.kr

'특별 관리' 경찰관 10명 중 8명

치안 최일선 지구대 근무

행안위 국감자료

전남지역의 '특별 관리' 대상 경찰관 10명 중 8명이 치안의 최전방인 지구대에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나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상이 됐으며, 이어 채무과다(11명), 직무태도 및 능력(4명), 신병비관(2명) 등이었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 김태원(한나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남에서 비리 전력 등 각종 결격 사유로 특별 관리를 받는 경찰관은 65명에 이른다. 경찰서별로는 목포서가 9명으로 가장 많았고, ▲진도서 8명 ▲완도서 5명 ▲무안서 5명 등이 근무 중이다.

특히 이들 관리 대상 경찰관 가운데 80%(52명)가 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어 철저한 관리·감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지구대의 경우 치안 최전방에서 시민들과 직접 접촉하는 데다 총기까지 지급된다는 점에서 사고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지구대 근무자는 근무 시간에 권총을 소지하는 만큼 자기절제를 못할 경우 시민을 위협에 빠뜨릴 수 있다"며 "자기관리에 철저한 직원을 가려 지구대에 근무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가운데 12명은 비리요인 내포 및 도덕성 결여 등을 이유로 관리 대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공범 존재 숨긴건 도피죄 아니다"

대변, 광주 오락실 업주 '범인 도피' 무죄 판결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공범의 존재를 숨겼더라도 공범의 도피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면 범인 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로 공범의 존재를 숨겼다고 해도 공범의 도피를 적극적으로 돕지 않았다면 범인 검거를 불가능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범인도피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19일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사행성 오락실 종업원 최모(36)씨와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오락실 업주 김모(4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최씨와 김씨는 불법 오락실 운영하거나 방조한 혐의만 인정돼 각각 징역 4월,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광주시 북구 오치동의 모 사행성 게임장에서 업주 김씨로부터 일당 15만원을 받고 바지사장으로 근무하던 중 단속에 적발되자 자신이 업주라고 허위 진술을 해 범인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앞서 지난해 6월 최씨에게 단속에 걸릴 경우 사자 행세를 하도록 하는 등 범인도피를 교사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

/최경호기자 choice@

나원침 (7931) 김장두



관광열차 치여 50대 숨져

지난 18일 오후 7시께 곡성군 오곡면 오지리 약수터 부근 철로에서 서모(여·56)씨가 곡성을 방향으로 향하던 관광열차에 치여 광주 조선대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경적을 울리는 등 정상적으로 열차를 운행했으나 사람이 치인 줄은 몰랐다"는 기관사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동부취재본부=김계중기자 kjk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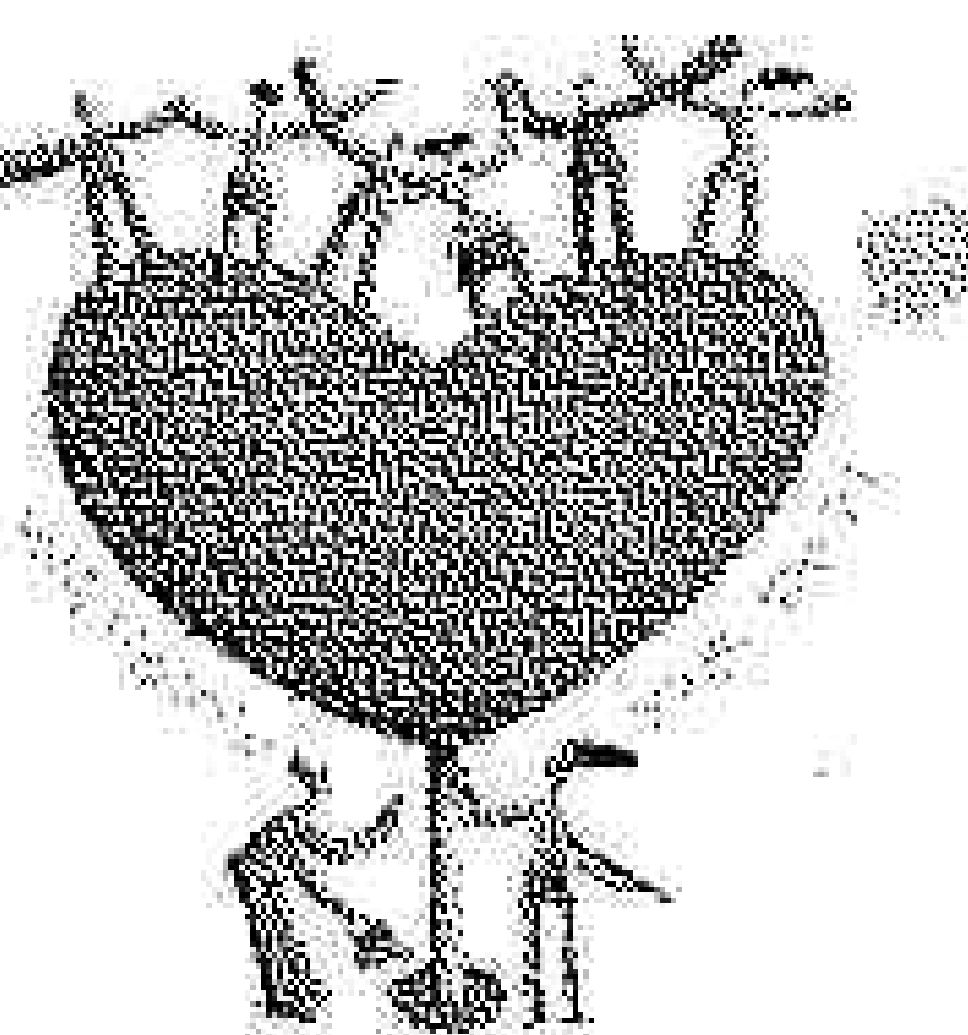
새끼 뱀 암소 도난 농민 발 동동

○한우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가운데 곡성에서 새끼를 뱀 암소가 도난당한 뒤 인근 폐가에서 도둑 당한 흔적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

○19일 곡성경찰에 따르면 김모(63)씨는 지난 15일 밤 곡성군 오곡면 송정리 마을 인근 섬진강변에 묶어둔 새끼 뱀 암소 한 마리를 도난당했다는 것.

○김씨는 경찰에서 "몇 달 전에 도 소가 사라졌다가 나타났다. 이번에도 다시 올 줄 알고 기다렸는데, 돌아오지 않았다"며 발을 동동.

○경찰은 소 말뚝이 발견된 지점에서 300m 떨어진 인근 폐가에서 도둑 흔적이 발견 됨에 따라 누군가 암소를 훔쳐간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 /동부취재본부=김계중기자 kjkim@



새로운 마음으로 큰 눈동자... 더 큰 사랑을 베풀어주세요

2009년 10월 20일 화요일... (Small text block with date and other details)

